



# 브라질의 비공식 노동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브라질

김경란 (브라질 캠피нас 주립대학교(Unicamp) 사회경제와 노동 박사과정)

## ■ 머리말

높은 수준의 경제의 비공식성과 이질성을 특징으로 하는 브라질 노동시장은 조직화된 공식 부문과 조직화되지 못한 비공식 부문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법률에서는 공식과 비공식을 나누는 기준을 노동사회보장수첩(CTPS)과 자영자 납세 등록번호(CNPJ) 소유 여부에 둔다. 공식 부문은 고용관계에 기반한 정규 임금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40%인 약 4천만 명에 이른다. 비공식 부문은 미등록 자영업자 및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임금노동자를 말하는데 이들의 규모는 약 3,500만 명이며, 임금노동자 중 약 1,500만 명이 비공식 노동에 종사한다. 한편 공식 부문에서도 아웃소싱이나 간헐적 고용 등 유연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역시 브라질 노동법에서는 공식 고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공식 고용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3년 ILO 제17차 국제노동통계회의의 결정<sup>1)</sup> 이후 브라질의 비공식 노동은 용어나 범주에 관한 강조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첫째는 미등록 비공식 기업이나 개인을 포함하는 전통적 형태의 도시 비공식 부문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둘째는 세계화 및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아웃소싱, 종속적 자영노동과 같은 고용형태

1) ILO는 노동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할 수 있으며 비공식의 규모 및 실태가 측정 가능하도록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가구나 비법인 소규모 영세기업인 경제활동 단위로 비공식 부문을 재규정했다.

에 주목하면서 일자리 자체에 중심을 두고 비공식 노동의 범주를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입장이다. 이 글에서는 이 두 흐름에 관련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브라질 통계청과 노동사회 보장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비공식 노동의 규모와 실태를 알아본다.<sup>2)</sup>

## ■ 브라질 비공식 노동의 두 갈래

### 전통적 형태의 비공식 노동

전통적 관점에서의 비공식 노동은 비공식 부문의 자영자 일자리를 말하며, 미등록 영세기업과 개인의 생산활동에 중심을 두는 전통적 형태로 자본주의 임노동 관계에 편입되지 못한 생산성이 낮은 활동을 지칭한다(Salas, 2003). “비공식 부문”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인류학자인 키스 하트가 1971년 아프리카 가나의 도시 지역에서 나타난 고용 현상을 개념화하면서 처음 등장했으며(Hart, 1973), 이후 1972년 ILO가 발간한 보고서인 『고용, 소득 그리고 평등』에 이 용어가 담기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비공식 부문은 시장 진입의 용이성이나 가족 소유 기업, 소규모 경영, 노동집약적 방식과 제한적 기술 등의 특징을 갖는 생존형 경제활동 단위를 지칭했으며, 개발도상국 단계에 있었던 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들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시의 잉여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고용창출의 한 형태로 인식되었다(ILO, 1972). 브라질 학계의 초기 인식도 이와 비슷해 비공식 부문이 높은 실업률을 완화하고 경제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매트리스”로 작용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노동력은 풍부하지만 일자리가 항상 부족해 실업률이 높았던 브라질로서는 비공식 부문이 활성화되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잉여 노동력을 일정 부분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전통적인 비공식 부문에는 미숙련 임시직, 가사노동자 및 노점상이 포함되며,<sup>3)</sup> 발전 과정

2) 브라질에서 통용되는 비공식 관련 용어는 접근 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해서 도시 비공식 부문, 비공식 노동, 불안정 노동, 비공식성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공식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노점상은 2018년 기준 23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약 80%는 해당 관청에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미등록 1인 독립 자영자로 분류된다.

을 거슬러올라가면 산업화 시대 도시 빈민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유니캄피 대학 경제학과의 파울로 바우타르 교수에 따르면, 20세기 동안 브라질 정부는 산업화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힘을 기울여 왔으나 서구 유럽과 달리 임금노동의 분화가 덜 완성되었고 노동은 공식과 비공식 부문으로 분할되었으며, 사회보장 시스템도 성공적으로 구축되지 못했다(Baltar, 2003). 195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임금노동자가 증가했지만 비공식 노동의 비중도 컸는데, 이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인구였다. 1940년부터 1989년까지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농업 종사자의 비중이 66.5%에서 23.2%로 감소했고(Dedecca and Brandão, 1993), 1950년대 이후 30년 동안 농촌에서 벗어난 인구는 약 3,800만 명에 달했다(Novais and Mello, 1998). 오늘날 브라질 빈부격차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빈민가 파벨라는 도시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주민들의 대표적인 정착지로, 1990년대까지 도시 인구의 36.7%가 이곳에 살았다. 로코모티바 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브라질 인구의 약 8%가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와 같은 대도시 주변에 살고 있으며 그 규모는 대략 1,700만 명으로 추정된다(Salles, 2021).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비공식 부문의 또 다른 특징은 인종과의 연관성이다.<sup>4)</sup> 다인종 국가인 브라질에서 흑인이나 혼혈 인종은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계층 상승이 쉽지 않고 저임금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구조적으로 인종차별과도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Cardoso et al., 2016).

## 새로운 형태의 비공식 노동

1980년대 이후 브라질은 경제성장 침체와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경제발전모델의 해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1990년대 말부터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화되고 산업구조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직업 안정성이 낮고 노동법이나 사회안전망에 대한 접근이 부분적으로만 제공되는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계 일부에서는 전통적 비공식 부문의 잣대만으로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비공식 부

4) IBGE(2019)에 따르면, 브라질의 인종별 인구 비중은 백인 42.7%, 흑인 9.4%, 혼혈 인종 46.8%, 황인종 1.1%이다. 브라질의 인종 간 비교는 경제, 사회 및 노동시장 불평등을 분석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이다.

문 논쟁에 불을 지폈다. 국제적으로는 ILO에서의 논의도 국내 논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ILO는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비공식 부문을 정의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고, 비교 측정이 가능한 “국제 표준화”에 실패하자 1993년에 개최된 제15차 국제노동통계회의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가구나 비법인 소규모 영세기업인 경제활동 단위로 비공식 부문을 재규정했다(ILO, 2000). 나아가 1999년 제87차 국제노동회의에서 “양질의 일자리” 정책 목표를 선언한 이후 2003년에는 비공식 고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일자리 중심으로 비공식 부문을 규정하기 시작했으며, 공식 부문에 속하더라도 노동법과 사회보장 및 고용 관련 보호를 받지 못하면 비공식 고용으로 규정했다(ILO, 2003).

비공식에 대한 브라질의 논쟁은 주로 브라질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그 변화를 둘러싼 쟁점으로부터 출발했다. 진보 경제학자인 상파울루 대학의 마리아 크리스티나 카씨아말리 교수는 세계화, 신자유주의 개혁 및 기술 변화의 영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이를 “비공식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했다(Cacciamali, 2000: 154). 또한 카씨아말리 교수는 비공식 노동의 발전에 대해 오랫동안 학계 주류를 형성했던 저개발국가론을 반박하고 브라질의 자본주의 현대화 과정을 강조한 접근법을 택했다. 비슷한 입장을 펼친 우니캄피 대학의 조제 크레인 교수와 마르셀로 프로니 교수는 노동시장 특성과 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브라질에도 위장된 고용 관계나 아웃소싱, 인턴십, 시간제 및 기간제와 같은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을 새로운 비공식 노동으로 분류하자고 주장했다(Krein and Proni, 2010). 한편 상 카를로스 대학의 에두아르도 과루티 노롱야 정치학 교수는 브라질 노동시장에는 공식과 비공식, 합법과 불법, 공정과 불공정 등 세 가지가 있다며 자본주의 생산 조직의 새로운 형태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나타난 고용형태를 “비정형 계약”으로 정의했다(Noronha, 2003: 124). 그는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비공식 논쟁을 경제적 시각 이외에 고용계약에 관한 법과 제도로 확장했다. 새롭게 등장한 이러한 흐름은 근본적으로는 개발주의 경제학을 뛰어넘어 브라질 자본주의와 노동시장 구조를 새롭게 재조명하려는 시도이자 비공식 노동을 전통적 형태로만 다루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였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우니캄피 경제연구소의 루드밀라 코스텍 아비리오 교수는 브라질 자본주의 현대화 과정의 특징으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주목하면서 전통적 비공식 부문이 노동시장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며 “우베리자싸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차별화를 꾀했다

(Abílio, 2020).<sup>5)</sup>

지금까지 비공식 노동의 두 갈래 논쟁을 알아보았다. 앞서 언급했듯, 전통적 비공식 부문의 다수는 도시 빈곤층 자영업자이며, 새로운 비공식 고용 종사자는 1990년대 이후에 증가하며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금노동자이다. 일자리의 속성만 놓고 보면 국가나 법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공식 부문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과 동일하지만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는 종사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비공식 노동의 규모와 실태를 알아보겠다.

## ■ 비공식 노동의 규모와 실태

### 취업자 구성

브라질 통계청(IBGE)이 실시하는 전국가구표본조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노동시장 및 고용 동향 지표를 제공한다(IBGE, 2021). <표 1>을 보면 14세 이상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은 임금노동자,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며, 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 수는 약 8,600만 명이다. 그중 임금노동자는 5,700만 명으로 약 66%를 차지했다. 자영자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가 430만 명으로 4.7%를 차지했고 고용원이 없는 1인 독립 자영자는 2,200만 명으로 26.4%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190만 명(2.3%)으로 집계됐다.

5) “우베리자싸움(Uberização)”은 온라인 플랫폼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가용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Uber)”에서 파생된 용어로 노동법의 권리가 제한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지칭하며, 아비리오 교수가 처음 사용하면서 대중 용어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표 1> 14세 이상 취업자 구성비(2020년)

(단위: 천 명, %)

	취업자
전체	86,053(100.0)
임금노동자	57,341( 66.6)
고용원 있는 자영자	4,030( 4.7)
고용원 없는 자영자	22,720( 26.4)
무급가족종사자	1,963( 2.3)

자료: IBGE(2021), 필자 재구성.

### 산업별 취업자 구성

브라질은 커피 및 사탕수수 생산 등에서 세계 최대 농업국가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산업구조는 선진국과 유사해 전반적으로 1, 2차 산업의 비중이 작고 3차 산업이 성장세에 있다. 산업별 종사자 구성을 보면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10%에 못 미치고, 제조업 및 건설업 종사자를 합한 비중도 20% 미만이다.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제조업 비중이 줄고 상업 및 공공, 민간 서비스업이 크게 성장해,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

<표 2> 산업별 취업자(2020년)

(단위: 천 명, %)

산업별	14세 이상 취업자
전체	86,053(100.0)
농림수산업	8,271( 9.6)
제조업	11,017( 12.8)
건설업	5,861( 6.8)
상업, 자동차 오토바이 등 차량 수리 보수	15,977( 18.6)
운수, 우편통신	4,399( 5.1)
숙박 및 음식점업	4,325( 5.0)
정보통신, 금융 및 부동산업, 전문행정업	10,252( 11.9)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의료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6,532( 19.2)
기타 개인서비스업	4,304( 5.0)
가사 서비스업	5,097( 5.9)

자료: IBGE(2021), 필자 재구성.

자가 약 70%에 이른다.

## 비공식노동

### 비공식노동 규모

공식과 비공식을 구분하는 통계청의 기준은 노동사회보장수첩(CTPS)과 자영자 납세 등록 번호(CNPJ)이다.<sup>6)</sup> 노동수첩을 소지한 공식 부문 임금노동자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을 모두 적용 받으며, 노동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 시간제, 기간제 및 간헐적 고용도 법적으로는 공식 노동에 속한다. 통계상 비공식 노동은 노동수첩 미소지자인 민간 및 공공 부문 임금노동자, 미등록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에서 비공식 노동은 3,500만 명으로 40.2%를 차지하며 이 중 비공식 임금노동자는 약 1,500만 명이다. 공공 부문은 민간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비공식 고용 비중이 적는데 이는 군인 및 법정 공무원 840만 명이 공식 노동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전체 가사노동자는 505만 명이지만 그중 공식 비중이 30%에 불과하고 약 360만 명이 비공식 노동 종사자이다. 사회보험 적용되지 않는 고용원 없는 1인 독립 자영자 중 비공식에 속하는 자영자는 약 76%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3> 2020년 기준 취업자 중 비공식노동 비중

(단위: 천 명, %)

종사상 지위		전체	공식	비공식
임금노동자	공공부문	12,001(100.0)	9,653( 80.4)	2,347( 19.6)
	민간부문	40,290(100.0)	30,625( 70.6)	9,665( 24.0)
	가사노동	5,050(100.0)	1,411( 27.9)	3,639( 72.1)
자영자	고용원 있음	4,030(100.0)	3,329( 82.6)	701( 17.4)
	고용원 없음	22,720(100.0)	5,378( 23.7)	17,342( 76.3)
무급가족노동		1,963(100.0)	-	1,963(100.0)

자료: IBGE(2021), 필자 재구성.

6) 브라질에서 피고용인은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노동사회보장수첩(CTPS)을 소지하며, 수첩에는 노동법에서 정한 직종, 급여, 채용일, 계약기간, 근무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고 고용인은 이 기록을 노동부 산하 지역 노동부 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자영자 납세 등록번호(CNPJ)는 법인이나 1인 독립 자영자에게 연방 국세청이 부여하는 등록번호이다.

### 공식 노동과 비공식 노동 간의 임금 격차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자의 임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식 노동과 비공식 노동의 임금 격차는 1.5~2배가량이다. 이를 평균임금으로 추산할 경우 격차는 더욱 커지는데 공식 노동자가 받는 법정 수당과 퇴직급여, 해고수당, 사회보장 급여 때문이다.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격차도 커서 공공부문 종사자는 민간부문 종사자보다 평균 두 배 이상의 소득을 얻는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의 소득은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등록 1인 독립 자영자와 가사노동자의 소득이 제일 낮다. 취업자 중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의 비중은 40.3%로 약 3,400만 명에 이른다.

<표 4>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자의 월 임금 현황(2020년)

(단위 : 헤알)

취업자		임금
전체 평균		2,444
민간 부문 임금노동자	공식(노동수첩 소지자)	2,357
	비공식(노동수첩 미소지자)	1,622
가사노동자	공식(노동수첩 소지자)	1,315
	비공식(노동수첩 미소지자)	788
공공 부문	공식(노동수첩 소지자)	4,041
	군 및 법정 노동자	4,457
	비공식(노동수첩 미소지자)	2,081
자영자	등록(CNPJ 소지자)	6,938
	미등록(CNPJ 미소지자)	4,013
1인 독립 자영자	등록(CNPJ 소지자)	3,103
	미등록(CNPJ 미소지자)	1,430

주 : 1헤알=약 246원(2022년 6월 30일 기준).

자료 : IBGE(2021).

<표 5> 2020년 기준 취업자 중 사회보험 미적용 비중(2020년)

(단위 : 천 명, %)

	취업자
전체	86,053(100.0)
사회보험 수급자	55,650( 64.7)
사회보험 미수급자	34,674( 40.3)

자료 : IBGE(2021), 필자 재구성.



## 새로운 비공식 고용형태

노동사회보장부는 매년 연간사회정보를 발표하는데 이 자료를 통해 새로운 비공식 고용형태로 분류되는 노동자의 규모를 알 수 있다. <표 6>에서 “기타”로 분류된 기간제, 임시 파견, 프리랜서, 간헐적 고용 등은 새로운 비공식 고용형태로 약 180만 명이다. 여기에 공식 고용

<표 6>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현황(2020년)

(단위: 명)

고용형태		종사자 수
공식 고용		44,970,490
노동수첩 소지자	무기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35,825,987
	유기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	811,761
법정(지자체, 주, 연방) 공무원		8,332,742
기타(새로운 비공식 고용)		1,831,319
	수습생 <sup>1)</sup>	372,076
	지자체 계약직	193,225
	임시파견직 <sup>2)</sup>	275,967
	주 정부 계약직	173,998
	기간제 <sup>3)</sup>	148,170
	프리랜서	47,086
	TMP 기간제 <sup>4)</sup>	36,599
	계약직 임원	18,565
	간헐적 노동 <sup>5)</sup>	199,064
	파트타임 <sup>6)</sup>	366,569

주: 1)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하는 14~24세의 청년으로 법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미성년자 수습생으로 일할 수 있음.

2) 임시파견은 일시적인 필요나 계절적 요인이 발생할 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은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1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함.

3) 최대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이후 고용 계약이 종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6개월의 휴지기를 거쳐 다시 해당 노동자를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음.

4) 기간제 고용계약 형태와 유형은 같지만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기업의 필요에 따라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결정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급여와 노동법적 권리는 해당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됨.

6) 주당 3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할 수 없거나 6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한 주 26시간의 단시간 일자리를 가리킴.

자료: Ministério do Trabalho e Previdência(2020), 필자 정리.

이기는 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어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약한 유기 고용까지 포함하면 약 260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져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측한다. 실제로 2020년 브라질 임시직노동협회(Asserttem)가 발표한 임시파견 노동자는 200만 명이 넘었다(CUT, 2021).

## ■ 맺음말

브라질 노동시장의 특징은 높은 수준의 비공식성이다. 전체 취업자 10명 중 4명이 낮은 소득과 취약한 사회안전망, 열악한 노동조건을 갖는 비공식 노동에 종사한다. 비공식 노동을 경제적 맥락에서 봤을 때 산업화가 진전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비공식 부문이 점차 축소되고 공식 부문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러한 예측이 들어맞지 않았다. 오히려 산업화와 도시화의 유산인 도시 비공식 부문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고용계약도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비공식 노동은 내부 구성이 복잡하고 용어나 범주 또한 단일한 개념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공식 고용”의 테두리 안에 있는 저임금 비공식 노동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법제도적 보호 방안도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KLI**

---

 참고문헌
 

---

- Abílio, L. C.(2020), “Uberização : a era do trabalhador just-in-time?”, *Estudos avançados*, 34, pp.111~126.
- Baltar, P. E. D. A.(2003). *O mercado de trabalho no Brasil dos anos 90*, Campinas :Unicamp (Tese de Livre Docência).
- Cacciamali, M. C.(2000), “Globalização e processo de informalidade”, *Economia e sociedade*, 9(1), pp.153~174.
- Cardoso, A. C. D., A. C. de Melo and T. do V. Gomes(2016), “O urbano contemporâneo na fronteira de expansão do capital : padrões de transformações espaciais em seis cidades do Pará, Brasil”, *Revista de Morfologia Urbana*, 4(1), pp.5~28.
- CUT(2021), “Na pandemia cresce 35% a contratação de trabalhador sem direitos”, <https://www.cut.org.br/> (2022.5.12).
- Dedecca, C. and S. Brandão(1993), “Crise, transformações estruturais e mercado de trabalho”, *APPY, B. et alii. Crise Brasileira : Anos, 80 e Governo Collor*, São Paulo, CGIL/CUT/DESEP, pp.307~350.
- Hart, K.(1973), “Informal Income Opportunities and Urban Employment in Ghana”,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11(3), pp.61~89.
- IBGE(2019), “Características gerais dos domicílios e dos moradores 2019”, <https://biblioteca.ibge.gov.br/> (2022.5.24).
- \_\_\_\_\_(2021), “Pesquisa Nacional por Amostra de Domicílios Contínua – PNAD CONTÍNUA”, <https://ftp.ibge.gov.br/> (2022.5.7).
- ILO(1972), *Employment, Incomes and Equality : A Strategy for Increasing Productive Employment in Kenya*, Geneva : ILO.
- \_\_\_\_\_(2000), “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Employment in the Informal Sector, Adopted by the Fif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January 1993)”, <https://www.ilo.org/> (2022.5.24).
- \_\_\_\_\_(2003), “Guidelines Concerning a Statistical Definition of Informal Employment” in *Seven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Geneva : ILO.
- Krein, J. D. and M. W. Proni(2010), “*Economia informal : aspectos conceituais e teóricos*. Série Trabalho Decente Brasil”, <https://bit.ly/2NTWc2G/> (2022.5.3).

- Ministério do Trabalho e Previdência(2020), “Relação Anual de Informações Sociais-Rais”, <http://pdet.mte.gov.br/> (2022.5.8).
- Noronha, E. G.(2003), ““Informal”, ilegal, injusto : percepções do mercado de trabalho no Brasil”, *Revista Brasileira de Ciências Sociais*, 18, pp.111~129.
- Noviais, F. and J. M. C. D. Mello(1998), “Capitalismo Tardio e Sociabilidade Moderna”, in *História da Vida Privada no Brasil : contrastes da intimidade contemporânea*, São Paulo : Cia das Letras, pp.559~658.
- Salas, C.(2003), “Trayectorias laborales entre el empleo, el desempleo y las microunidades en México”, *Papeles de población*, 9(38), pp.121~157.
- Salles, S.(2021), “Cerca de 8% da população brasileira mora em favelas, diz Instituto Locomotiva”, *CNN Brasil*, 4 novembro, <https://www.cnnbrasil.com.br/> (2022.5.2).